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將軍之官，謀慮出焉。”에 대한 고찰
-肝의 기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¹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 ²慶熙大學校 人文學研究院 研究教授
安鎮燾^{1*}·辛相元¹·尹銀卿^{1,2}

A Study on the Metaphor “Liver is the Admiral
from which Strategic Planning is derived” in
『Suwen Linglanmidianlun』
-Focusing on its Association with Liver Function-

Ahn Jinhee^{1*}·Shin Sang-won¹·Yoon Eunkyung^{1,2}

¹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²Research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taphor that the liver is the admiral from which strategic planning is derived in 『Suwen Linglanmidianlun』 in relation to Liver function.

Methods : Annotations to the verse along with descriptions of strategic planning in classical texts and their relation were examined.

Results : Previous annotators described the Admiral organ and Strategic Planning separately, in which it is difficult to fully explain the totality the two. They can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only when they are in dependence of each other can they become complete. Liver function as described in classical texts and contemporary text books such as detoxification and sterilization all embody this meaning of strategic planning of an admiral.

Conclusions : Reinterpretation of the Liver function based on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Liver as described in 『Suwen Linglanmidianlun』 is required. This will allow for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the metaphor means, and to better connect this description to Liver physiology for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Liver itself in Korean Medicine.

Key words : Suwen·Linglanmidianlun(素問·靈蘭秘典論), Admiral organ(將軍之官), Strategic Planning(謀慮), Liver governs dispersing and discharging(肝主疏泄), Liver stores blood(肝藏血)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ni@khu.ac.kr

Received(January 29, 2020), Revised(February 5, 2020), Accepted(February 5,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五臟六腑를 君主, 相傳, 將軍, 中正, 作強 등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관직에 비유하여 각 臟腑의 전체적인 象을 설명했다. 이들 관직은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특징이 있어, 당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친숙한 象을 의학적 실체에 적용하여 그 지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臟腑를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한의학적 지식이 생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¹⁾. 그 중 肝에 대해서는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²⁾이라고 하여 將軍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謀慮를 발휘하는 모습에 肝의 象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고 설명하였으며, 『內經』의 기타 편들에서도 肝을 將軍의 象으로 보았음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에서는 肝의 생리적 기능을 肝主升發, 肝主疏泄, 肝藏血 등으로 개괄하였으나 이를 將軍이라는 肝의 가장 대표적인 象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지 않다. 따라서 將軍은 비유로서만 존재하고,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에서의 肝의 생리적 기능은 또 별개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각 서적의 將軍, 謀慮에 관련된 언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東醫生理學』에서는 ‘정신활동의 기초’ 부분과 ‘主怒’ 부분에서 다루었는데 둘 다 肝의 將軍之官을 肝이 억압받거나 굴욕을 당하여 울체되면 怒의 정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³⁾, 謀慮가 배제된 채

將軍之官을 肝의 情志인 怒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臟象學』⁴⁾과 『韓醫學原論』⁵⁾의 肝의 기능과 관련한 설명 부분에서는 將軍, 謀慮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中醫基礎理論』에서는 將軍之官이 용맹하고 완강하며 성격이 급하여 움직이기를 좋아 하는 將軍의 특징을 형용하였다고 하면서 肝氣上逆, 肝陽亢奮, 化火生風 등의 병리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였고⁶⁾, 『中醫藏象學』에서는 『東醫生理學』과 마찬가지로 將軍之官을 肝主怒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⁷⁾.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將軍之官을 안을 편안하게 하고 밖을 지키는 의미로 파악한 논문⁸⁾, 將軍之官을 간장의 생리 기능의 개괄로 파악하여 주로 機體를 호위한다고 파악한 논문⁹⁾, 將軍之官이 병리표현이 아니고, 謀慮를 지니고서 調節을 행하거나 인체를 방어하거나 木氣가 上升하여 心君을 돕는 것으로 파악한 논문¹⁰⁾, 將軍之官의 의미를 衛外로 파악하고 이를 元氣의 升發과 敷布, 升發衛氣, 疏利氣血, 協調臟腑, 調暢情志, 排泄廢物 등 6개 방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논문¹¹⁾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구절에서 주로 將軍之官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었고, 將軍의 象을 急, 動, 怒, 勇으로 보아 肝氣上逆, 肝陽亢奮, 化火生風 등의 병리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將軍과 謀慮의 의미를 종합적,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將軍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

1) 白裕相은 한의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귀추적 추론은 연구자의 감각과 이성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미 내재된 지식체계의 일종인 象을 바탕으로 대상을 존재론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素問·靈蘭秘典論』의 추론 방식도 이러한 방법론과 유사하다. (白裕相, 原典學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2), pp.1-16.)

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4. 같은 문장에 대한 각주 표시는 이하 동일하므로 따로 표시하지 않음.

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編者, 東醫生理學. 파주, 집문당, 2008. pp.208-218.

4) 朴贊國 譯者,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p.181-186.

5) 朴선영, 김호현. 한의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이제, 2015. pp.104-107.

6)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p.202-210.

7)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96-208.

8) 張安玲, 論肝者將軍之官的生理病理意義. 中醫藥學報, 1997. 3. pp.6-7.

9) 陳貴海, 劉衛華. 將軍之官發微. 中醫論壇, 2006. 21(5). pp.48-49.

10) 張寶成, 馮婷婷, 駱春梅, 高永翔. 肝爲將軍之官淺說. 新中醫, 2013. 45(2). pp.153-154.

11) 王玉芳. 淺談肝爲將軍之官的意義. 江西中醫藥, 2011. 42(340). pp.14-15.

표 1.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에 대한 기존 注釋家들의 주석 내용

注釋家	王冰	馬蒔	吳昆	張景岳	李仲梓	張志聰	高世祚	章楠	丹波元簡
將軍之官	勇而能斷	肝屬木木主發生	氣急志怒	肝屬風木性動而急	肝爲震卦壯勇而急	氣急志怒	氣勇善怒	肝爲剛臟	肝者, 中之將也, 取決於膽, 肝膽爲表裏
謀慮	潛發未萌	運籌于帷幄之中	肝爲厥陰, 未出于陽, 潛發未萌	木主發生	肝爲東方龍神, 龍善變化	主春生之氣, 潛發未萌	運籌揆度	而出謀慮	肝出謀發慮膽爲之斷決

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비유에 대한 기존 주석가들의 주석 내용을 통해 원문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못한 謀慮의 내용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兵法書를 포함한 古典에서 將軍과 謀慮가 포함된 원문 내용을 분석하여 將軍과 謀慮의 의미를 파악한 후, 肝의 升發하고 疏泄하며 藏血하는 기능 등을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비유와 연관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素問·靈蘭秘典論』의 비유와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에서의 肝의 생리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비유에 대한 분석

1) 『素問·靈蘭秘典論』에 대한 기존 주석 내용 검토

『素問·靈蘭秘典論』은 『黃帝內經』에서 五臟六腑를 다루는 篇 중 가장 먼저 나오는 篇으로 五臟六腑의 기능을 君主之官인 心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관직에 비유하여 五臟六腑의 전체적인 象을 설명하였고, 특히 神明, 治節, 謀慮, 決斷, 伎巧 등의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을 말하였다. 이 중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기존 주석가들

의 견해들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王冰은 “용감하여 능히 끊어낼 수 있으므로 將軍이라고 하였고, 잠겨 발하였으나 아직 싹트지 않았으므로[潛發未萌] 謀慮가 나온다.”¹²⁾고 하였다. 王冰은 將軍을 설명함에 있어서 복잡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중요시 했다. 謀慮에 대한 설명에서, 잠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이 이미 시작 단계에 들어선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아직 싹트지 않았다는 것은 일의 실체를 드러내기 이전 暗中摸索의 가운데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謀慮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馬蒔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에서 “木은 發生을 주관하므로 將軍之官이 되며, 謀慮가 나오는 것은 막사 안에서 산가지를 운용하는 것[運籌]과 같다.”¹³⁾고 하여 將軍之官의 將軍을 설명함에 있어서 木氣가 지닌 發生과 연관시켰고, 謀慮를 將軍이 전쟁터에서 실행하기 이전에 막사 안에서 산가지¹⁴⁾를 운용하여 주관알을 놓듯이 구체적인 계산을 하면서

12) 孫國中 點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89. “勇而能斷故曰將軍, 潛發未萌故謀慮出焉.”

13) 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76-78. “肝屬木, 木主發生, 故爲將軍之官, 而謀慮所出, 猶運籌于帷幄之中也. 五藏津液別篇云, 肝爲之將. 師傳篇云, 肝者主爲將.”

14)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 네이버 주식회사. 1999. [cited 2020 9 February]; Available from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292b829263e49fa828aebac6fa9b18> “산가지는 수효를 셈하는 데에 쓰던 막대기로 대나무나 뼈 따위를 짓가락처럼 만들어 가로 세로로 벌여놓고 셈을 하였는데, 일·백·만의 단위는 세로로, 십·천·십만에 해당하는 단위는 가로로 놓고 셈하였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산가지[籌]를 활용하는 것은 실체를 가정한 器物을 가지고 모의실험(simulation)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행위로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빈틈없는 논리적인 추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吳昆은 『黃帝內經素問吳注』에서 “肝은 氣가急切 情志가 화내는 것이므로 將軍之官이 되고, 肝은 厥陰이 되어 陽 부위로 아직 나오지 않고, 잠겨 발하여 아직 싹트지 않았으므로 謀慮를 주관한다.”¹⁵⁾고 하여 肝의 기운이 급박하고, 情志가 화내는 것이므로 將軍之官이 되고, 肝은 厥陰으로 謀慮도 厥陰의 성질과 연관되어¹⁶⁾ 王水과 마찬가지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모색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張景岳은 『類經·藏象類·十二官』에서 “肝은 風木에 속하여 성질이 움직이고 급하므로 將軍之官이 된다. 木은 發生을 주로 하므로 謀慮가 나오는 곳이 된다.”¹⁷⁾라고 하여 風木의 動하면서도 급한 성질이 將軍에 비유된다고 파악하였고, 張景岳은 木이 생명을 떠나가는[發生] 특징이 있으므로 미리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謀慮라고 했다. 生命은 고귀하므로 生命을 펼쳐나가는 일은 仁한 마음을 바탕으로 그것이 손상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주도면밀하게 미리 준비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¹⁸⁾.

李仲梓는 『內經知要』에서 “肝은 震卦가 되어 싹 싹하고 용기가 있으며 급하므로 將軍之官이 된다. 肝은 東方의 龍神이 되고, 龍은 변화를 잘하므로 謀慮가 나오는 곳이 된다.”¹⁹⁾라고 하여 肝의 진취적인

기상을 『周易』의 八卦 중 하나인 震卦에 비유하면서 將軍之官이라고 했고, 謀慮를 東方神인 龍의 변화무쌍한 성질과 연관지어 말하였는데, 이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謀慮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謀慮는 일이 현실화되기 이전부터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철저히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에 현실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謀慮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龍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비유한 것은 謀慮의 작용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측면을 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黃庭經醫疏·心神章』에는 五藏神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 肝神을 龍煙이라고 했다. 龍煙의 龍은 肝이 魂을 주관하고, 그 神의 형태가 靑龍과 같기 때문이고, 煙은 연기를 의미하는데, 변화하여 정해진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龍煙의 의미는 肝의 神靈이 변화무쌍하여 무엇으로 형상화할지 헤아릴 수 없음을 가리킨다. 龍煙은 字를 ‘舍明’이라고 하는데, 舍의 의미는 삼키지 않고 입속에 머금고 있는 것으로 肝이 명철함을 머금고 있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²⁰⁾ 역시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肝의 謀慮를 이해하는 데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張志聰은 『黃帝內經素問集注』에서 “肝은 氣가 급하고 情志가 노하는 것이므로 將軍之官이 된다. 봄에 生하는 氣를 주관하고 잠겨 발하여 아직 싹트지 않았으므로 謀慮가 나온다.”²¹⁾라고 하여 吳昆과 마

15) 吳昆 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43. “肝氣急而志怒, 故爲將軍之官. 肝爲厥陰, 未出于陽, 潛發未萌, 故主謀慮.”

16) 韓東錫 著. 宇宙變化的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1. pp.118-119. 韓東錫은 厥陰風木을 사물이 생하려고 하지만 힘이 不及하여서 생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를 厥자가 尸+巛+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서 取象하여 사물이 逆出(逆)하려고 하지만, 굴마위(尸) 아래와 같은 응고가 심한 곳에 있어서 그 힘이 불급하여 生할 수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7)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66. “肝屬風木, 性動而急, 故爲將軍之官, 木主發生, 故爲謀慮所出.”

18) 馬蒔는 ‘發生’의 특징을 將軍之官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데, 將軍과 謀慮의 개념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 李念菽 原輯. 陳運舫 加批. (加批圈點)內經知要. 北京. 新文豐出版公司. 1994. p.54. “肝爲震卦, 壯勇而急, 故爲將軍之官. 肝爲東方龍神, 龍善變化, 故爲謀慮所出.”

20) 周楣聲 疏注. 夏學傳協輯. 黃庭經醫疏.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1. p.56. “肝神龍煙字含明, 翳鬱導煙主濁清. 東方屬木, 神爲靑龍, 長六寸, 靑錦披裳. 又稱肝主魂, 其神形如靑龍, 化爲二玉童, 一靑衣, 一黃衣, 各長九寸. 出入於肝藏也. 煙者變化無定之狀也. 龍煙者指肝之神靈變化莫測也. 藏而不露謂之舍, 肝氣旺於丑, 正天地含明, 日未出之時也. 龍通龍, 龍煙者亦含明之象. 屏蔽爲翳, 鬱鬱, 茂盛貌, 翳鬱者升發之氣, 生而未暢之意.”

21) 張隱庵 集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84. “肝氣急而志怒, 故爲將軍之官. 主春生之氣, 潛發未萌, 故謀慮出焉.”

찬가지로 肝의 기운이 급박하고, 情志가 화내는 것이므로 將軍之官이 되고, 謀慮는 王水이나 吳昆과 마찬가지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모색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高世栻은 『素問直解』에서 “氣가 용기가 있고 잘 노하는 것이 마치 將軍之官과 같고, 산가지를 운영하여 헤아리고 헤아리므로 謀慮가 이로 말미암아 나온다.”²²⁾라고 하여 謀慮는 將軍이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막사 안에서 미리 작전을 짤 때 실제 변수를 고려하여 산가지를 놓아가며 모의실험을 하면서 싸움의 판세를 헤아려보는 것임을 말하였다.

章楠은 『靈素節注類篇』에서 “肝은 剛臟이 되지만 謀慮를 내므로 將軍之官이라고 호칭한다.”²³⁾라고 하여 肝이 ‘剛’의 성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되는 ‘謀慮’의 작용을 내기 때문에 將軍之官이라고 불린다고 하였다. ‘剛’의 성질은 굳세게 전진하는 陽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살피고 헤아려 유연하게 대응하는 陰의 성질을 나타내는 謀慮를 겸비하여야 비로소 將軍之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將軍’은 단순히 용감하게 나아가는 성질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반드시 謀慮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내가 奇病論에서 말한 것을 살피건대, ‘肝은 中의 將軍으로 膽에게서 결단을 취하여 肝膽이 表裏가 되므로 肝이 謀慮를 내어 膽이 肝을 위해 결단한다.”²⁴⁾라고 하여 肝이 將軍으로 謀慮를 내지만, 膽에게서 결단을 취함을 말하여 肝膽의 表裏 협조로 일을 결행함을 말하였다. 謀慮는 결단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는 계획으로 謀慮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中正之官인 膽의 決斷이 필수적이다.

이상에서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에 대하여 기존 주석가들의 주석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肝이 風木에 속하여 용기가 있고, 氣가 급박하며, 動하려고 하고,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어서 將軍之官에 비유된다고 설명하였고, 謀慮에 대해서는 잠겨 말하여 아직 싹트지 않음을 강조하거나 木이 생명을 떠나가는 發生의 특징이 있으므로 미리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謀慮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고려하므로 변화무쌍함을 강조한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주석들을 살펴보면 將軍과 謀慮의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兩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章楠의 경우에는 肝이 剛臟이지만 謀慮를 낸다고 하여 將軍이 剛柔의 양면을 겸비하였음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연관시켜 설명하려 했으나, 將軍과 謀慮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將軍의 특성과 謀慮의 특성을 분리시켜 설명하는 기존 주석의 방식으로는 肝의 象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 『黃帝內經』의 다른 편에 나오는 ‘謀慮’의 의미

謀慮, 謀, 慮와 관련하여 『素問·靈蘭秘典論』 외에 『黃帝內經』의 다른 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素問·奇病論』에 ‘謀慮’와 ‘中之將’이 나오는데, 입이 쓴 膽癢이라는 病機를 설명할 때 將軍之官인 肝에서 謀慮를 했는데도 決斷을 내리지 못하여 膽虛하게 되고 氣가 위로 흘러넘쳐 입이 쓴 병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肝에서 낸 謀慮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의 中正을 인식하고 결단을 내리는 膽의 협조가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²⁵⁾ 이

22)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62. “氣勇善怒, 猶之將軍之官, 運籌揆度, 故謀慮由之出焉.”

23) 章楠 編注. 方春陽, 孫芝齋 點校. 靈素節注類篇 醫門棒喝三集.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p.41-42. “肝爲剛臟, 而出謀慮, 故號將軍之官.”

24) 丹波元簡 等 編. 聿修堂醫書選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67. “簡按奇病論云, 肝者, 中之將也. 取決於膽, 肝膽爲表裏, 故肝出謀慮, 而膽爲之斷決也.”

2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76-177. “帝曰: 有病口苦, 取陽陵泉, 口苦者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 病名曰膽瘧. 夫肝者中之將也, 取決於膽, 咽爲之使. 此人者, 數謀慮不決, 故膽虛, 氣上溢, 而口爲之苦. 治之以膽募俞, 治在陰陽十二官相使中.”

러한 양자의 관계성 속에서 將軍, 謀慮의 의미를 한정지어 볼 수 있다. 謀慮는 決斷과 어느 정도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將軍'도 맹렬한 기세를 바탕으로 급히 결론에 이르려는 성질보다는, 최종적인 決斷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하여 고려하는 주도면밀한 성질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靈樞·玉版』과 『靈樞·官能』에는 비록 '謀慮'는 아니지만 '謀'가 나온다. 『靈樞·玉版』에서 聖人은 膿血이 생성되기 전에 미리 다스림을 강조하면서 "聖人은 화농이 된 것을 부릴 수가 없었으니, 邪氣를 머무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양쪽의 군대가 서로 맞닥뜨려 깃발들이 휘날리는 것을 서로 볼 때에 흰 칼날을 들판에 진열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에 도모한 것이 아니다."²⁶⁾라고 하여 '謀'가 나오는데, 이때의 '謀'는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서 다듬어진 생각임을 말하고 있다.

『靈樞·官能』에서는 黃帝가 岐伯에게 九鍼에 대한 하나의 줄거리를 세워 말하겠다고 하면서 鍼을 사용하는 원리를 언급할 때 '謀'가 나온다. "침을 사용하는 원리는 形氣가 있는 곳과 左右上下와 陰陽表裏와 혈기의 많고 적음과 운행의 거스르고 따름과 출입하면서 합하는 곳을 반드시 알아야만 지나침이 있는 것을 처내기를 도모한다."²⁷⁾고 하였다. 이때의 '謀'는 처내(伐) 과단성 있는 행동이 있기 전에 미리 일을 꾀함을 말한다.

『靈樞·本神』에는 '慮'가 나오는데 "생각에 기인하여 먼 것을 그리워하는 것을 사려라고 하고, 사려에 기인하여 사물에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²⁸⁾라고 하여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먼 앞날을 내다보고 대처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사려를 중시했다.

이와 같이 『素問·靈蘭秘典論』 외에 『黃帝內經』의 다른 편에서는 '謀慮', '謀', '慮'에 대해 말했는데 대체적으로 일이 있기 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리 도모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謀慮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膽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말하였다.

3) 그 밖의 古典에 나오는 '將軍'과 '謀慮'의 의미

한의학 古典인 『黃帝內經』 이외에 兵法書를 포함한 여러 古典에서 將軍과 謀慮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兵法書 이외의 문헌에 나타난 관련 언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周易』의 天水訟卦의 象傳에서는 비록 謀慮라고 하지 않고, '作事謀始'라고 했지만 이는 일함에 있어서 처음을 도모하는 것을 언급하여 謀慮와 맞닿는 지점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周易·天水訟卦·象傳』에서 "하늘이 물과 더불어 어겨서 행하는 것이 송사이니, 군자가 이로써 일을 지움에 처음을 도모한다[作事謀始]."²⁹⁾라고 하였고, 程頤의 주석에서는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어서 서로 어겨서 행하여 두 개의 몸체가 어기고 어그러지니 송사가 비롯된다. 만약 위아래가 서로 따르면 송사가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겠는가? 군자가 象을 관찰하고 人情을 알아 다루고 송사하는 道를 두었으므로 무릇 일을 짓는 바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처음을 도모하여[作事謀始] 일의 처음에 송사의 단서를 끊어내면 송사가 비롯되어 생길 수가 없으니, 처음을 도모하는 뜻이 넓다. 예를 들어 사검과 맺음을 삼가고, 계약과 문서를 밝히는 부류가 이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訟卦의 '訟'은 訟事, 곧 일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란은 이미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의 초기에 잉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2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0. "聖人不能使化者爲之, 邪不可留也. 故兩軍相當, 旗幟相望, 白刃陳於中野者, 此非一日之謀也."

2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5. "用鍼之理, 必知形氣之所在, 左右上下, 陰陽表裏, 血氣多少, 行之逆順, 出入之合, 謀伐有過."

2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

29) 明文堂編輯部 校閱. 備旨具解原本周易(乾). 서울. 明文堂. 1999. p.231. "象曰天與水違行訟, 君子以作事謀始."

30) 明文堂編輯部 校閱. 備旨具解原本周易(乾). 서울. 明文堂. 1999. p.231. "[傳]天上水下, 相違而行, 二體違戾, 訟之由也. 若上下相順, 訟何由興. 君子觀象, 知人情, 有爭訟之道, 故凡所作事, 必謀其始, 絕訟端於事之始, 則訟无由生矣. 謀始之義, 廣矣. 若慎交結明契券之類是也."

어떤 일을 펼침에 있어서 이해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목적인 바의 일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의 시작을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³¹⁾. 이것이 ‘謀始’의 의미인데, 이를 볼 때 謀慮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謀慮의 특징 중 일의 초기라는 時點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초기’이지만 일을 떠나가는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상황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王水의 ‘潛發未萌’의 의미와도 그 軌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程頤는 ‘作事謀始’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사림과 맺음을 삼가고[愼交結], 계약과 문서를 밝히는[明契券] 것을 들었는데, ‘愼交結’은 예의에 맞게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쌓고 일을 수행할 조직력을 정비하는 것이고, ‘明契券’은 진행될 일에 대한 전체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人間事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이 일의 진행을 위해 공동체 내부의 인간사적인 요소들을 바로잡고 정리하는 것이 謀慮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劉向의 『說苑·權謀』에서는 謀慮의 중요성과 그 단서에 대하여 언급했다. “聖王이 일을 거행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謀慮를 자세히 살피고 그런 뒤에 시초점과 거북점으로 吉凶을 고찰한다. 가난한 평민의 선비도 모두 그 도모에 관여하고, 풀을 베고 나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그 마음을 다한다. 그러므로 온갖 일을 처리하는 데 籌策을 빠뜨림이 없다.”³²⁾라고 했다. 謀慮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현

실적 변수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對備하는 것이라면, 시초점이나 거북점은 이에 對比되는 天地神明의 영역으로 天時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보면 謀慮는 인간의 능동적인 대응과정으로서 ‘謀事在人’의 의미를 갖고, 시초점과 거북점은 ‘成事在天’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일의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맡은 개인의 사고만이 아니라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 전체적인 일의 계획에서 논리의 비약이나 누락이 없이 완벽해지고 치밀해질 수 있는데, 이를 ‘籌策을 빠뜨림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謀慮란 매우 인간적인 특성을 가진 행위이며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역량을 끌어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近思錄集解·政事』에서는 “큰 임무를 담당하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독실해야 한다.”³³⁾에 대한 程明道의 주석에서 “독실하면 力量이 깊고 두터우며 謀慮가 자세하고 확고하니, 이에 큰일을 맡을 수 있다.”³⁴⁾라고 했다. 儒學에서 말하는 大任이란 결국 王道政治를 구현하여 백성들을 구하고 萬物의 化育을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세하고 확고한 謀慮가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篤實이라는 德에서 나오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 때 篤實이란 앎이나 말을 실제 행동과 일치시키고자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러한 篤實함은 善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나가고자 하는 용기와도 통한다. 이러한 篤實함, 용기가 바탕이 될 때에 단순한 머리 굴림이 아닌 ‘審固’라고 표현한 謀慮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大任은 매우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데, 將軍이 용기를 발휘하여 위험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해내어 반석위에 올려놓아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도 그것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兵法書에는 將軍과 그가 수행하는 謀慮에

無遺籌失策.”

31) 『論語·顏淵篇』에서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訟事を 듣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訟事を 없게 할지이다.”(申泰三 校閱. 原本備旨論語集註(下). 서울. 明文堂. 2001. p.72.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라고 했는데, 訟事는 이익을 놓고 是非非를 이해 관계자가 서로 다투는 것으로 孔子는 訟事가 발생한 뒤에 하소연하는 자의 말을 다른 사람들처럼 잘 들어 올바른 판결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訟事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단서를 없애어 防備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32) 劉向 撰. 林東錫 譯註. 說苑. 서울. 동서문화사. 2009. pp.1320-1323. “聖王之學事, 必先論之於謀慮, 而後考之於著龜. 白屋之士, 皆關其謀, 芻蕘之役, 咸盡其心, 故萬舉而

33) 成百曉 譯註. (譯註)近思錄集解 3.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4. p.128. “欲當大任, 須是篤實.”

34) 成百曉 譯註. (譯註)近思錄集解 3.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4. p.128. “篤實則力量深厚, 而謀慮審固, 斯可以任大事.”

대한 언급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우선 將軍에 대해 주로 설명하는 언급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三略直解』에서는 “主將의 법은 힘써 영웅의 마음을 거두어서 功이 있는 자에게는 상과 녹봉을 내리며, 여러 사람들과 上下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함께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고, 여러 사람들과 나쁜 일을 함께하면 마음이 기울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편안히 함은 훌륭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요, 나라를 망치고 집을 깨뜨림은 훌륭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니, 生氣를 머금은 무리가 모두 그 뜻을 얻기를 원하게 된다.”³⁵⁾라고 하였으며, “장수는 국가의 운명을 맡은 자이니, 장수가 적을 제압하여 승리할 수 있으면 국가가 안정된다.”³⁶⁾고도 하였다. 將軍의 본질적인 의미가 많은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여 가정과 나라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이나 명예, 자아도취를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 將軍은 마음을 열어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았다³⁷⁾. 이에 따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含氣有生之類’가 모두 장군에게 마음을 의탁하여 장군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원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곧 將軍의 궁극적인 사명은 공동체를 위협에서 구하여 모든 생명이 순조롭게 펼쳐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5) 劉寅 直解. 成百曉, 李鍾德 譯註. (譯註)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pp.345-346. “夫主將之法, 務覽英雄之心, 賞祿有功, 通志於衆, 故與衆同好, 靡不成, 與衆同惡, 靡不傾心, 治國安家, 得人也, 亡國破家, 失人也. 含氣之類, 咸願得其志.”

36) 劉寅 直解. 成百曉, 李鍾德 譯註. (譯註)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pp.385-386. “夫將者, 國之命也, 將能制勝, 則國家安定.”

37) 劉寅 直解. 成百曉, 李鍾德 譯註. (譯註)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pp.387-388. 『三略直解』에서 “어진 者의 지혜와, 성스럽고 밝은 자의 해아림과, 나무꾼의 말과, 조정에 있는 大臣의 말과, 흥망성쇠의 일을 將帥는 마땅히 들어서 알아야 한다. 將帥가 선비를 생각하기를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이 하면 훌륭한 계책이 따르게 된다.(故曰仁賢之智, 聖明之慮, 負薪之言, 廊廟之語, 興衰之事, 將所宜聞. 將者能思士如渴, 則策從焉.)”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將軍의 謀慮도 결국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책에서 “장수는 반드시 사졸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고 편안함과 위대함을 함께하여야 비로소 적을 침공할 수 있다. …… 『軍識』에 이르기를 ‘훌륭한 장수가 군대를 통솔할 적에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병사들을 다스리니, 은혜를 미루어 베풀어서 병사들의 힘이 날로 새로워져, 전투할 적에 폭풍이 일어난 듯이 하고 공격할 적에 황하를 터놓은 듯이 한다.’라고 하였다.”³⁸⁾ 장수가 군대를 통솔하여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여 사졸들과 同苦同樂해야 함을 말했다. 전쟁 중 사졸들이 겪는 고통과 위험은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것이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아주 낮은 곳의 문제이다. 將軍의 솔선수범이란 이처럼 현실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당면한 현실 속의 문제에서부터 군대와 함께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전투를 수행할 적에도 폭풍이 부는 것처럼 하고, 붓물이 터진 것과 같은 기세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같은 책에서 “『軍識』에 이르기를 ‘사려와 용맹은 장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행동거지와 분노는 장수가 신중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네 가지는 장수의 밝은 경계이다.”³⁹⁾라고 하였다. 사려[慮]와 용맹[勇]과 행동거지[動]와 분노[怒]가 장군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말하였는데, 장군이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신중하게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고⁴⁰⁾, 반대로 사려와 용기는 將軍에게 불가결한 특성을 말하였다. 용기와 분노는 표면적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將軍은 이를 명확히 분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8) 劉寅 直解. 成百曉, 李鍾德 譯註. (譯註)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pp.375-383. “夫將帥者, 必與士卒, 同滋味而共安危, 敵乃可加. …… 『軍識』曰, 良將之統軍也, 恕己而治人, 推惠施恩, 士力日新, 戰如風發, 攻如河決.”

39) 劉寅 直解. 成百曉, 李鍾德 譯註. (譯註)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pp.392-393. “軍識曰, 慮也勇也, 將之所重, 動也怒也, 將之所用, 此四者, 將之明誠也.”

40) 앞에서 살펴본 일부 『內經』注家들이 怒와 動을 중심으로 將軍의 象을 풀어간 것을 계고해 볼 여지가 있다.

『尉繚子直解·武議』에서는 吳起의 말을 인용해 “장군은 오로지 깃발과 북만을 주관할 뿐이니, 어려움에 임하여 의심스러운 일을 결단하고 병사들을 지휘하여 병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장수의 일이다. 한 劍의 임무가 장군의 일은 아니다.”⁴¹⁾라고 했다. 將軍은 단지 하나의 劍을 휘둘러 홀로 용맹함을 자랑하며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며, 우선 당면한 난제의 해결책을 찾아내어 작전의 목표와 방향을 결단하고 군대라는 공동체 전체를 직접 통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⁴²⁾. 특히 이에 대한 주석에서는 將軍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직접 깃발과 북을 잡고 통솔하여 승리를 거둔 사례를 제시하여⁴³⁾ 부대 뒤에 막사 안에서 소극적으로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을 감내하면서 앞장서는 것이 將軍의 역할임을 역설하였다. 즉, 將軍이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장서서 공동체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존재라고 본 것이다.

『尉繚子直解·將令』에서 “군주가 직접 장수에게 斧鉞을 주면서 말하기를 ‘……, 만약 자신의 분수를 넘어 위로 청하는 자는 죽이고, 군대에는 두 명령이 없으니 대장 이외에 다른 명령을 내리는 자는 주벌하며, 명령을 지체하는 자도 주벌하고, 명령을 그르치는 자도 주벌한다.’라고 한다. 將軍이 병사들에게 고하기를 ‘都城 문 밖을 나가서 한낮에 營表를 轅門에 설치하고 모이기를 기약하니, 만약 때를 넘기고 늦게 도착하면 군법대로 처벌한다.’라고 한다. 將軍이 진영에 들어가면 軍門을 폐쇄하고 길을 청소하는데, 감히 제멋대로 길을 다니는 자가 있으면 주벌하고, 감히 큰 소리로 떠드는 자가 있으면 주벌하

고,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주벌한다.”⁴⁴⁾라고 했는데, 이는 將軍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전쟁을 수행할 부대의 군령을 엄격히 세워 질서를 정비하는 것임을 말한다.

『孫武子直解·九地』에서 “將軍의 일은 고요함으로써 그윽하며 공정함으로써 다스려져야 한다.”⁴⁵⁾라고 했는데, 이는 將軍의 謀慮가 막사 안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함으로써 내부의 규율을 확립하여 정돈해야 다스림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兵法書에는 謀慮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타난다. 『六韜直解·虎韜』에서도 “太公이 말하기를 무릇 (將軍이) 병사를 거느리고 군대를 통솔할 적에, 謀慮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며 가르침이 정밀하고 미덥지 않으며 병사들이 훈련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경우는 王者의 군대라 할 수 없습니다.”⁴⁶⁾라고 하여 謀慮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장비를 구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방향은 모두 謀慮에 의하여 기획되므로 모든 軍務에 앞서 謀慮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였다.

『司馬法直解·定爵』에서는 “謀慮에 성취가 많으면 사람들이 복종하고, 때에 맞추어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면 그 순서가 다스려진다. ……, 謀慮가 이미 정해지면 마음이 이에 강해진다.”⁴⁷⁾라고 하였다. 謀慮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록 사람들이 감복하여 마음을 모으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질서가 정립됨을 말하였다. 또한 謀慮가 정해지면 사람들의 목표

41) 服部宇之吉 校訂. 富山房編輯部 編輯. 尉繚子直解(漢文大系 13 列子·七書). 東京. 富山房. 昭和59(1984). p.30. “將專主旗鼓爾, 臨難決疑, 揮兵指刃, 此將事也. 一劍之任, 非將事也.”

42) 본문의 ‘깃발’은 명확한 작전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고, ‘북’은 직접 용기를 불어넣어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43) 服部宇之吉 校訂. 富山房編輯部 編輯. 尉繚子直解(漢文大系 13 列子·七書). 東京. 富山房. 昭和59(1984). p.30. “春秋時, 晉伐齊, 晉卻克, 傷於矢, 流血及屨, 未絕鼓音, ……”, 左并轡, 右援枹而鼓, 馬逸不能止, 師從之, 齊師敗績, 此將專主旗鼓之證也.”

44) 服部宇之吉 校訂. 富山房編輯部 編輯. 尉繚子直解(漢文大系 13 列子·七書). 東京. 富山房. 昭和59(1984). p.48. “君身以斧鉞授將曰, ……”, 若踰分而上請者死, 軍無二令, 二令者誅, 留令者誅, 失令者誅. 將軍告曰, 出國門之外, 期日中, 設營表置轅門, 期之, 如過時則坐法. 將軍入營, 則閉門清道, 有敢行者誅, 有敢高言者誅, 有敢不從令者誅.”

45) 劉寅 直解. 成百曉, 李蘭洙 譯註. (譯註) 孫武子直解·吳子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2. pp.310-311. “將軍之事, 靜以幽, 正以治.”

46) 成百曉 譯註. (譯註) 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pp.236-237. “太公曰, 凡帥師將衆, 慮不先設, 器械不備, 教不精信, 士卒不習, 若此不可以爲王者之兵也.”

47) 服部宇之吉 校訂. 富山房編輯部 編輯. 司馬法直解(漢文大系 13 列子·七書). 東京. 富山房. 昭和59(1984). pp.20-21. “慮多成, 則人服. 時中服, 厥次治, ……”, 慮既定, 心乃強.”

를 향하는 구성원의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謀慮는 개인적인 계획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謀慮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조직력이 강해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周易·天水訟卦·象傳』, 『說苑』, 『近思錄集解』에서는 보편적 인간사에 나타난 謀慮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三略直解』, 『六韜直解』, 『司馬法直解』 등의 병법서에서는 실제 將軍이 담당하는 軍務에서 나타나는 將軍과 謀慮의 관계를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 인간사의 구조를 인체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兵家의 사상도 한의학의 이론을 이루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⁴⁸⁾ 『素問·靈蘭秘典論』의 將軍, 謀慮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肝의 기능에 대한 해석

肝의 기능은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臟象學』 등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肝主升發, 肝主疏泄, 肝藏血로 나누어지므로 肝의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작업이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비유에 대한 분석이므로 肝의 기능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주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謀慮와 將軍之官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肝主升發’의 의미

‘肝主升發’은 肝의 기능 중 하나로 肝이 五行 중 風木에 속하여 봄에 만물의 싹이 새로 돋아 發揚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으로 『黃帝內經』에서도

48) 鄭宇鎮은 『黃帝內經』이 兵家의 용어들을 차용하여 유비적 전용을 통해 한의학의 개념들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鄭宇鎮, 『黃帝內經』의 형성배경에 관한 철학적 연구 : 유비적 사유의 전개, 2010.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49-156.)

‘肝主升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봄의 3개월을 이것을 發陳이라고 일컬으니, 天地가 모두 生하려고 하여 만물이 이로써 번영하게 되니,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넓게 걷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형체를 느슨하게 하여 뜻으로 하여금 生하게 하며, 살리되 죽이지 말고, 주되 빼앗지 말며, 상을 주되 벌주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春氣의 응당 生을 기르는 道이니, 이를 거스르면 肝을 상하여 여름에 寒變이 되어 기르라는 명령을 받드는 것이 적어집니다.”⁴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봄의 養生은 응당 生을 기르는 도리를 받들어 겨울 동안 갈무리되어 있던 기운을 펴고 펼쳐야 肝이 손상되지 않음을 말한 것으로 肝이 봄이 되어 發陳함에 주동적으로 일을 함을 말하고 있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또한 “春氣를 거스르면 少陽이 생하지 않아 肝氣가 안으로 변화합니다.”⁵⁰⁾라고 하여 봄의 生을 기르는 도리가 少陽 및 肝氣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素問·金匱真言論』에서는 봄에 東風이 불어 기운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병이 머리 부위에서 나타나고, 이를 치료하는 것도 목 부위에 있음을 말하였는데⁵¹⁾, 이도 肝의 상승하고 펼쳐내는 ‘肝主升發’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素問·六節藏象論』에는 “肝은 극함을 깨뜨리는 근본이고, 魂이 거처하는 곳이니, 그 精華는 손톱에 있고, 그 충만함은 筋에 있어서 이로써 血氣를 만들고, 그 맛은 신맛이며, 그 색은 창공의 푸른색이니, 이것이 陰中の 少陽이 되어 春氣에 통한다.”⁵²⁾라고

4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 “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夜臥早起, 廣步於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罰, 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 逆之則傷肝, 夏爲寒變, 奉長者少.”

5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 “逆春氣, 則少陽不生, 肝氣內變.”

5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 “東風生於春, 病在肝, 俞在頸項. ……중략……, 春氣者病在頭.”

5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6.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中之少陽, 通

했는데, 이는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겨울잠을 자고 있던 만물을 깨울 수 있는 升發하는 氣가 肝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한다.

『素問·玉機眞藏論』에는 봄의 맥상으로 弦脈을 말하였는데⁵³⁾, 弦脈도 肝의 상승하고 퍼뜨리는 ‘肝主升發’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素問·陰陽類論』에서 사계절 중의 봄과 十干 중 甲乙과 五色 중 靑色을 肝이 주관함을 말한 것과⁵⁴⁾, 『靈樞·陰陽繫日月』에서 “五行 가운데 東方은 甲乙木으로 봄에 왕성하고, 봄은 蒼色으로 肝을 주관한다.”⁵⁵⁾라고 한 것과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肝은 牡藏이 되고, 그 색은 靑色이며, 그 때는 봄이고, 그 음은 角音이며, 그 맛은 酸味이고, 그 날은 甲乙日이다.”⁵⁶⁾라고 한 것도 모두 ‘肝主升發’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肝主升發’은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肝이 五行 중 風木에 속하여 氣가 上升하여 發揚하는 작용과 관련된다.

‘肝主升發’은 현대의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의 책에서 陽氣의 上升과 發散, 升舉陽氣, 生氣 충만, 升發生長, 氣機의 調暢 등의 방면으로 설명되었다.⁵⁷⁾

於春氣” 洪元植은 “陽中之少陽”의 精校에서 林校(林億의 新校正本)에 全元起本과 甲乙 및 太素에 의거하여 “陽中”을 “陰中”으로 해야 된다고 하였고, 五行大義에도 “陰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論者도 『靈樞·九鍼十二原』에 “陰中之少陽, 肝也.”라고 한 것에 의거해 볼 때 “陰中”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번역할 때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 5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2. “黃帝問曰, 春脈如弦, 何如而弦. 岐伯對曰, 春脈者肝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故其氣來, 栗弱輕虛而滑, 端直以長, 故曰弦.”
- 5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8. “孟春始至, 黃帝燕坐, 臨觀八極, 正八風之氣, 而問雷公曰, 陰陽之類, 經脈之道, 五中所主, 何藏最貴. 雷公對曰, 春甲乙靑, 中主肝, 治七十二日, 是脈之主時, 臣以其藏最貴.”
- 5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6. “黃帝曰: 五行以東方甲乙木王春. 春者, 蒼色, 主肝, 肝者, 足厥陰也.”
- 5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6. “肝爲牡藏, 其色靑, 其時春, 其音角, 其味酸, 其日甲乙.”
- 57) 진국환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編著. 東醫生理學. 과주. 김문당. 2008. pp.208-218.

2) ‘肝主疏泄’의 의미

肝主疏泄⁵⁸⁾은 肝이 인체의 생리활동에 있어서 氣機를 전반적으로 疏通시키고, 發泄하여 퍼는 작용을 일컫는 것으로 ‘肝主升發’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肝主升發’은 봄이 되어 肝의 木氣가 상승함으로써 펼쳐지는 작용이라면 ‘肝主疏泄’은 좀 더 적극적인 木氣의 작용으로 심지어는 克의 작용이 일어나 土氣를 소통하게 하고, 氣를 누설시키는 작용이 있다.

‘肝主疏泄’이라는 말이 『黃帝內經』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 ‘肝主疏泄’을 의미하는 곳이 『素問·五常政大論』에 木運이 太過한 發生之紀를 설명하는 구절에 나온다. “發生이 다스리는 해는 이를 啓陳(열고 진열함)이라고 일컬으니, 土氣를 소통시키고 누설하게 하여 푸른 木의 기운이 창달하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기운이 펼쳐져 변화하면 陰氣가 이에 뒤따르니, 生氣가 순수하게 변화하여 만물이 이로써 번영합니다.”⁵⁹⁾라고 하여 木運이 太過한 發生之紀의 때에 木克土의 相克 작용으로 土氣를 疏泄하는 작용이 언급되는데, 이것이 肝主疏泄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

『黃帝內經』 이후에 金元四大家 중 朱丹溪에 이르러 『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에서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⁶⁰⁾라고 하여 腎이 닫고 갈무리하는 역할을 맡는 반면에 肝은 疏泄하는 작용을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疏泄의 목적은 『素問·五常政大論』과 마찬가지로 土氣가 아니라 腎이 갈무리하고 있는 精

- 朴贊國 譯者.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p.181-186.
- 박선영, 김호현. 한의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15. pp.104-107.
-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p.202-210.
-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96-208.

- 58) 肝主疏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김상규. 中醫學의 肝主疏泄 機能과 五臟調節에 對한 考察. 대전대학교 보건스프즈대학원 대체의학과 보건학석사학위논문. 2013. pp.1-58.
- 5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4. “發生之紀, 是謂啓陳, 土疏泄, 蒼氣達, 陽和布化, 陰氣乃隨, 生氣淳化, 萬物以榮.”
- 60) 陳柱杓 註釋.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3-14.

으로 변모하였다.

‘肝主疏泄’은 현대의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의 책에서 氣機와 情志의 소통, 氣血津液의 소통, 수액대사의 조절, 담즙 분비와 소화 기능의 촉진, 남자의 排精과 여자의 月經 조절, 衝任脈의 조절, 생식기능의 보조 등의 방면으로 설명되었다.⁶¹⁾

3) ‘肝藏血’의 의미

‘肝藏血’은 肝의 기능 중 하나로 “肝이 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해석된다.

‘肝藏血’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黃帝內經』에서 두 곳이 있다. 우선 『素問·調經論』에서 肝心脾肺腎 각 五臟이 간직하고 있는 血神肉氣志를 말할 때에 ‘肝藏血’이 언급될 뿐만이 아니라⁶²⁾, 『靈樞·本神篇』에서 五臟의 虛實에 따른 증상을 설명할 때 “肝은 血을 간직하고, 血에는 魂이 머물러 있으니, 肝氣가 虛하면 두려워하고 實하면 화낸다.”⁶³⁾와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肝藏血’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문맥상 ‘肝藏血’과 연관성이 깊은 문장은 『黃帝內經』 중에서 『素問·五藏生成篇』과 『素問·腹中論』에서 살펴볼 수 있다.

『素問·五藏生成篇』에서 “사람이 누우면 血이 肝으로 귀속되는데, 눈이 血을 받아야 능히 볼 수가 있고, 발이 血을 받아야 능히 걸을 수가 있으며, 손바닥이 血을 받아야 능히 손아귀에 짚 수가 있고, 손가락이 血을 받아야 능히 집어 올릴 수가 있다

.”⁶⁴⁾라고 하여 血이 최종적으로 귀속되고 모이는 곳이 肝이고(肝藏血),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 몸의 각 부분이 활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

『素問·腹中論』에서는 血이 마르는 血枯證을 설명하면서 肝의 손상을 언급하는데⁶⁵⁾, 이것도 肝藏血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낮에 營養과 滋潤을 담당하느라 소모되었던 血이 밤이 되어 肝으로 되돌아가 質이 높으면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血이 되려면 肝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陰氣를 기를 수 있게 되는데, 陰氣는 肝의 부드러움을 유지하여 肝의 上升之氣가 太過하지 않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⁶⁶⁾, 이러한 陰氣를 바탕으로 謀慮도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肝藏血’은 현대의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의 책에서 혈액의 저장, 혈류량조절, 혈액의 수렴과 출혈 방지 등의 방면으로 설명되었다.⁶⁷⁾

61)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編著. 東醫生理學. 과주. 집문당. 2008. pp.208-218.

朴贊國 譯者.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p.181-186.

박선영, 김호현. 한의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15. pp.104-107.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p.202-210.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96-208.

6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6. “夫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 而此成形.”

6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9.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

6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9-41. “人臥, 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洪元植은 ‘肝受血而能視’의 精校에서 肝이 『傷寒論』 成無已注와 『宣明論方』에 모두 ‘目’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目’으로 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論者도 이를 옳다고 생각하여 번역할 때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6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9. “帝曰有病胸脇支滿者, 妨於食, 病至則先聞腥臊臭, 出清液, 先唾血, 四支清, 目眩, 時時前後血, 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病名血枯. 此得之年少時, 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

66)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p.202-210.

67)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編著. 東醫生理學. 과주. 집문당. 2008. pp.208-218.

朴贊國 譯者.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pp.181-186.

박선영, 김호현. 한의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이체. 2015. pp.104-107.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pp.202-210.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96-208.

Ⅲ. 考察

1. 將軍과 謀慮

1) 『素問·靈蘭秘典論』 설명의 특징과 기존의 문제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말하는 神明, 治節, 謀慮, 決斷, 伎巧 등은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五臟六腑에게 부여된 君主, 相傳, 將軍, 中正, 作強 등의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각의 관직의 목적과 필요성, 수행하는 일의 특성,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과 덕성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象을 이루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분리되면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전체적인 象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생긴다.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구절의 將軍과 謀慮에서도 사회적으로 공적인 지위인 將軍이 謀慮를 통해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기존 주석가들의 언급에서는 주로 將軍之官과 謀慮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將軍과 謀慮의 총체적인 象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본래 將軍과 謀慮는 실제 將軍에 대한 象을 가진 당대의 사람들에게 별개로 인식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將軍이라는 직위에 있는 인물이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謀慮를 하는 모습을 당대의 현실 속에서 생생히 관찰한 결과 만들어진 象으로서 兩者는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다.

현대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東醫生理學』, 『臟象學』, 『韓醫學原論』, 『中醫基礎理論』, 『中醫藏象學』 등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이 담고 있는 肝主升發, 肝主疏泄, 肝藏血 등의 분화된 肝의 기능들을 다루고 있지만, 將軍과 謀慮의 총체적인 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또, 將軍의 象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急, 動, 怒, 勇 등 피상적인 將軍의 모습으로 파악한 결과, 肝氣上逆, 肝陽亢奮, 化火生風 등의 병리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존 한의학에서 인식해왔던, 인

간의 생명 전체에서 肝이라는 臟이 담당하는 생명 활동의 목적과 이에 의거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능들의 연계와 같은 생리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將軍과 謀慮의 象

將軍의 사명은 국가의 어려움과 위협을 맞이하여 공동체 전체를 지휘 통솔하여 공동체를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구하여 모든 생명이 그 생명력을 순조롭게 펼치도록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때 將軍은 君主를 대신하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임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여 실질적인 해결책과 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목적 달성하기 위해 將軍은 개인의 생존, 명예, 자아도취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여러가지 일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군령을 세워 내부의 규율을 확립하고 술선수범하여 현실 저면의 문제들에서부터 직면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대의 내부를 결속하여 마음과 힘을 모아 최대의 역량을 이끌어낸다. 최종적으로 將軍은 용기를 바탕으로 전투에서 이들을 진두지휘하여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

국가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이며, 공동체는 인간들이 모여 서로 도와 생명을 펼치는 場이다. 將軍이 필요한 상황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생명을 펼치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는 매우 위태로운 경우이다. 이때 최선단의 현실 속에서부터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將軍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將軍은 생명을 펼치고자 하는 善한 마음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강한 용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체의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 희생정신, 이성적 사고와 신중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謀慮는 현실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아직 현실로 들어가지 않은 일의 시작점에서 일의 전

반적인 것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모든 요소들에 대해 신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치밀하게 사고하여 대비한다. 그러나 謀慮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리의 판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謀慮는 공동체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하려는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이다. 이에 謀慮는 人事의 요소들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사람들의 지혜와 힘 등을 이끌어내며 내부의 균율을 정비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진정한 謀慮는 절대로 사적인 욕망의 표출을 위해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善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篤實한 마음, 곧 勇氣가 진정한 의미의 謀慮의 본질적인 動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將軍과 謀慮는 善을 실현하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공통적으로 그 본질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將軍에게 있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謀慮를 발휘해야 하며, 반대로 진정한 謀慮는 將軍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將軍과 謀慮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온전한 將軍과 謀慮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해야 그 총체적인 象을 파악하고 藏象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將軍과 謀慮를 통한 肝의 機能 이해

將軍과 謀慮의 象은 將軍이 일을 수행해나가는 과정 중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전투에서는 용감하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이, 군중에서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 치밀하게 계획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將軍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상황에 따른 모습은 다른 것이다. 肝의 ‘기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肝의 본질에 가까운 象이 있다면 이것이 肝이 마주치는 생리적, 병리적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양상으로 포착되는 것이 所謂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개별적인 기능은 결국 하나의 象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素問靈蘭秘典論』의 논의를 따라 앞서 논의한 將軍과 謀慮의 총체적인 象을 肝의 象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본문에서 肝主升發, 肝主疏泄, 肝藏血 등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肝의 기능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肝主升發

肝主升發은 이른 봄 潛發未萌의 상황에서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을 틔워내는 것이라 현실세계 속에서 생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서, 陽氣가 湧出하여 전신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陽氣는 본래 그 자체로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肝의 升發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肝에서 상승해야 하는 陽氣는 下焦의 腎精으로부터 氣化된 것으로 맑고 순수하며 精微로워 先天에 가까우며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⁶⁸⁾.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陽氣는 아직 그것이 바탕을 두고 있는 形體가 미약하며 세력도 강하지 않아 後天 현실 세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이다⁶⁹⁾. 만약 이 陽氣가 전신으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생명 활동을 펼치지 못하여 활력을 잃고 정체되고 위축된다. 따라서 싹이 땅을 뚫고 나오며 陽氣가 初生하는 봄의 시기는 전체적으로 생명을 펼쳐나가는 데에 있어 매우 위태로운 시점에

68) 風藥이 味薄, 陰中之陽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陽氣를 伸하며, 陽氣의 시작점인 下焦 陰分으로부터 升發하여 전신으로 펼쳐나가는 의미도 이러한 升發의 의미와 통한다. (辛相元, 李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원진학회지. 2018. 31(4). pp.1-16.)

69) 厥陰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厥陰은 陰이 厥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兩陰交盡’이라고 했는데, 朴贊國은 兩陰交盡을 內的으로는 精이 陽化되는 것을 억제하던 陰氣가 없어져 精이 陽化되기 시작하고, 外的으로 形質에 있던 陰質이 다 타 버려 내부에서는 風木이 陽氣를 발생하기 시작하고, 外的으로는 形質이 자라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朴贊國 譯注. 懸壺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파주. 집문당. 2009. pp.419-423.), 韓東錫은 힘이 불급하여 생활 수 없는 委屈한 모습으로 보았다(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1. pp.118-119.)

해당한다.

肝의 升發은 이처럼 初生하는 맑고 여린 陽氣의 상승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肝이 주도적으로 陽氣를 상승시켜 전신으로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初生하는 陽氣가 펼쳐짐으로서 비로소 전신에서 활발한 생명 활동이 벌어지는데,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 전체가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실현하려는 용기도 역시 필요하다. 또 陽氣의 상승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실제로 문제에 직면하여 해소해내어 소통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즉 升發은 새로운 생명력을 전신에 펼치려는 肝의 총체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작용으로서 疏泄과 藏血의 작용도 많은 부분 升發에 관련된다.

한편, 將軍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규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아 백성들과 萬物이 원활히 생명을 펼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初生하는 陽氣의 상승이 위태로운 시점에서 이를 주도하여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肝의 升發의 임무에 부합한다. 또한 將軍이 이러한 사명을 맡을 수 있는 바탕에는 현실에서의 문제에 직면하여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謀慮를 해나간다. 전체적으로 볼 때 肝의 升發은 將軍의 본질적인 사명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肝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肝을 罷極之本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⁷⁰⁾. 이는 張景岳이 생명을 떠나가는 發生의 특징과 謀慮를 관련지은 것, 『近思錄集解』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大任을 맡기 위해서는 篤實을 바탕으로 한 審固한

謀慮가 필요하다고 한 것, 『三略直解』에서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력을 순조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將軍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한 것과도 연관된다.

肝主升發의 구체적인 예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의식이 깨어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찍 발동이 걸리거나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肝主升發’의 기능도 將軍之官과 謀慮가 함께 관여되어 있다. 의식이 깨어나거나 일찍 발동이 걸리거나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은 氣가 상승하거나 쑥쑥 커나가는 모습이므로 將軍의 쩍쩍한 기상이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많은 智略이 필요하므로 謀慮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식이 깨어나거나 일찍 발동이 걸리는 것은 衛氣가 밤 동안 五藏인 陰分을 腎, 心, 肺, 肝, 脾, 腎의 순서로 25마퀴 돌고, 평일에 陰이 다했을 때 陽氣인 衛氣가 눈으로 나오면서 눈이 떠져 그 氣가 위로 머리 부위로 갔다가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 手少陽, 足陽明, 手陽明의 순서로 陽分을 돌면서 발현되는 것으로⁷¹⁾ 치밀한 謀慮가 필요하고, 어린아이는 純陽之體로 少陽之氣를 지녀 봄에 땅에서 생명이 쑥쑥 자라나듯이 왕성한 生長力을 나타내는데, 생후 32일에 1번 변화하여 癸水를 생하여 足少陰腎經에 속하고 主精하며, 64일에 2번의 변화로 絳(蒸) 壬水를 생하여 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등 신생아에서 생후 1년까지 骨脈, 五臟六腑, 神智등이 변화하는 變蒸의 과정을 통해 謀慮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²⁾.

70) 朴贊國 譯注. 洪元植 監修. 改訂版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집문당. 2005. p.208. 朴贊國은 罷極之本을 겨울에 封藏했던 것을 깨뜨려서 陰極과 陽極으로 분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활시위를 한껏 당긴 상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행위,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행위, 상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진열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7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4. “故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手太陽, 下至手小指之間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 側下至小指之間,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頰脈, 注足陽明以下行, 至跗上, 入五指之間. 其散者, 從耳下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72) 丁奎萬 編著. 東醫小兒科學. 서울. 行담출판. 1988. pp.34-40.
金德坤 外 7人 編著. 東醫小兒科學. 서울. 鼎談. 2002. pp.28-34.

2) 肝主疏泄

肝主疏泄은 肝이 氣機를 소통시켜 氣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통시켜야 한다는 것은 氣機가 막히기 쉬운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氣機가 막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肝에 관련해서는 升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다. 인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외부의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데,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氣가 펼쳐지지 못하고 막히게 된다. 肝에서 升發시키는 맑은 陽氣는 생명력을 추동하여 외부의 상황에 민첩하고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데, 맑은 陽氣가 충분히 전신으로 升發되지 못하면 인체가 변화의 원동력을 잃어 생명 활동이 둔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氣의 정체가 발생하게 된다. 肝의 疏泄은 맑은 陽氣를 이끌어 氣가 정체한 곳으로 보내어 이를 해소하고 소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疏泄이 잘 이루어져야 升發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升發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疏泄이 이루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情緒를 잘 발현시키는 문제는 肝主疏泄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언급된다. 情緒는 七情을 말하는데, 뜻이 현실에서 원활하게 펼쳐지면 七情이 순조롭게 발현되지만, 만약 문제에 봉착하여 뜻이 펼쳐지지 않으면 七情도 역시 鬱結되며 이에 따라 氣가 탁해지고 막히게 된다⁷³⁾. 肝이 맑은 陽氣를 升發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면 뜻이 펼쳐지게 되어 막혔던 氣機가 풀리면서 情緒가 잘 퍼진다.

肝主疏泄은 소화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脾胃는 본래 氣의 생산과 분배를 통해 전신에 氣를 공급하는데, 전신의 생명 활동이 둔화되어 氣의 소통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脾胃가 氣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목적을 잃고 울체된다. 이때 肝이 맑은 陽

氣를 이끌고 정체를 해소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氣의 공급을 요함에 따라, 脾胃의 울체가 풀리고 생산과 분배의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消化가 잘 되게 된다. 이것은 소화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脾胃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肝이 전신의 氣機를 疏泄하는 작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土가 木을 얻으면 꿩똥 된다.”⁷⁴⁾라고 하였고, 唐宗海의 『血證論·臟腑病機論』에서 “木의 성질은 疏泄을 주관하는데, 곡식의 기운이 胃에 들어가면 온전히 肝木의 기운에 힘입어서 疏泄케 하여 水穀이 이에 소화가 된다. 실령 肝의 淸陽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水穀을 疏泄할 수가 없어서 설사와 中滿의 證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⁷⁵⁾라고 肝이 淸陽을 升發하여 疏泄시키는 것이 水穀을 소화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素問·經脈別論』에서도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이라 하여 腎에 갈무리되어 있던 精을 肝이 퍼뜨려 맑은 氣를 전신으로 보내는 것을 소화 과정의 시작으로 보았는데⁷⁶⁾, 陽氣를 升發시켜서 생명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통해 氣機를 전반적으로 소통시켜 배설하는 疏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론에서 李仲梓는 謀慮를 龍의 변화무쌍함에 비유하여 말했는데, 將軍이 謀慮를 통해 戰勢의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과 象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疏泄의 작용과 맥락이 닿아있다. 국가에 전쟁이 발생한 것은 인체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氣機가 정체된 상황과 같다. 결국 將軍이 사소한 사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듯이, 肝은 氣의 정체를 해소시켜 陽氣를 퍼뜨린다는 점에서 의미의 맥락이 유사하다.

방법서 중 『三略直解』에서는 將軍이 술선수범하

7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6. 『素問·學痛論』에서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昃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이라 하여 情緒의 발현이 급박하고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氣의 움직임도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고 지우치게 됨을 말하였다.

7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7. “土得木而達.”
75) 唐宗海 著, 魏武英, 李佺 整理. 血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11. “木之性主于疏泄, 食氣入胃, 全賴肝木之氣以疏泄之, 而水穀乃化, 設肝之淸陽不升, 則不能疏泄水穀, 滲瀉中滿之證, 在所不免.”
76)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집문당. 2005. pp.434-438.

여 가장 낮은 수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폭풍이 부는 것처럼 하고, 붓물이 터진 것과 같은 기세를 이룸을 말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막힌 것을 터주는 ‘疏’와 그 결과로 氣가 원활히 흐르는 ‘泄’의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3) 肝藏血

肝藏血은 肝이 단순히 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肝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탁해진 血을 정비, 양육하여 현실적인 쓰임새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血은 밤에 肝으로 돌아갔다가 낮에 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져서 보고 걷고 손에 쥐고 물건을 집어 올리는 등의 현실적인 생리 활동을 이루어지도록 하는데⁷⁷⁾, 밤에 血이 돌아가는 것은 낮에 생리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갈무리하여 정비하고 다음날 낮의 활동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

또, 肝이 陽氣를 升發시키는 데에도 관련되는데, 이 升發은 단순히 陽氣만이 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맑고 여린 성질의 陽氣가 실제로 생리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힘을 지닌 氣血과 결합해야 한다. 특히 氣血 중 血은 가장 현실적인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血이 정비되어 있어야만 바로 陽氣와 함께 온 몸으로 퍼져서 구체적인 생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藏血은 升發, 疏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

將軍의 象을 통해 살펴보면, 將軍이 일에 앞서 미리 치밀한 謀慮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사작전을 펴는 것과 유사하다. 肝이 밤에 藏血하는 것은 王冰이 ‘潛發未萌’이라고 설명한 것, 그리고 馬蒔가 ‘막사 안에서 산가지를 운용한다’고 설명한 것과 유사

하다. 『六韜直解·虎韜』에서도 謀慮를 통해 모든 軍務를 기획해야 군대가 바로잡힘을 강조하였다.

또 藏血은 陽氣의 升發을 위해 현실적인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規율을 세워 군대의 질서를 정비하거나 일에 앞서 공동체 내부의 인간사적인 요소들을 신중히 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역량을 최대에 이끌어내는 것과 통한다. 『尉繚子直解』, 『孫武子直解』에서 군대 내부의 規율을 세워 질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 것, 『司馬法直解』에서 謀慮를 잘 하게 되면 조직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 것, 『周易·天水卦·象傳』의 程頤의 주석에서 慎交結하고 明契券하는 등의 ‘謀始’를 말한 것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말한 것이며, 『說苑·權謀』에서 사람들의 역량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 것, 『三略直解』에서 將軍의 일은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핵심임을 지적한 것 등은 기본적으로 將軍의 일이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데에서 출발함을 말한 것이다.

3. 將軍과 謀慮를 통한 서양의학의 肝 기능에 대한 이해

肝이라는 동일한 해부적 실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서양의학에서 말한 肝의 기능도 결국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본다면 한의학적인 肝의 象을 통한 이해를 시도해볼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 설명하는 간의 주요기능⁷⁸⁾으로는 탄수화물대사,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담즙산 및 빌리루빈 대사,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 호르몬 대사, 해독 작용 및 살균 작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아미노산 및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 물질을 대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영양 물질은 주로 혈관계를 통해 전신의 각종 조직으로 운반되어 생리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적 바탕이자 현실적인 동력의 의미를

7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9-41. “人臥, 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洪元植은 ‘肝受血而能視’의 精校에서 肝이 『傷寒論』 成無已注와 『宣明論方』에 모두 ‘目’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目’으로 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論者도 이를 옳다고 생각하여 번역할 때 이를 바탕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78)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네이버 주식회사. 1999. [cited 2020 21 January];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596&cid=51006&categoryId=51006>

나타낸다. 각각의 물질들은 서로 다른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며 구분되는 것들이지만 인체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에 肝이 이들을 종합적으로 대사하는 것은 일련의 공통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면 象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將軍이 미리 군대의 질서를 정비하고 작전 계획을 갖추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인체가 생리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물질의 대사를 담당하는 것이 將軍이 謀慮를 하는 모습에 닮아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의학에서 말하는 藏血의 의미와도 통한다.

肝의 해독작용은 신체 내에서 합성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환하여 쓸개즙이나 소변을 통해 배설하는 것이다. 이는 생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변화시켜 필요한 것은 다시 생리의 기전 속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 볼 때 낮 동안의 생리 현상을 통해 질서가 어지러워진 血을 갈무리하여 정비하는 藏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將軍의 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將軍이 暗中摸索을 통해 계획을 마련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에서 서양의학의 해독 작용의 맥락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毒性 물질이 누적되면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신체가 위협에 빠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해독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疏泄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肝은 살균작용도 하는데 간에 존재하는 대식세포⁷⁹⁾의 일종인 별큰포식세포(쿠퍼세포)가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항체인 감마 글로블린을 생성하는 것은 將軍이 미리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에 해당하며, 이들이 직접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모습은 將軍이 앞장서서 敵軍에 대항하여 승리로 이끄는 모습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이도 또한 將軍의 모습이 있으면서 謀慮가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肝의 일부 기능을 해석하

는 하나의 예시를 제시한 것일 뿐이나, 향후 한의학의 象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臟腑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양의학에서 기술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내장의 기능들도 결국 제한된 조건 속에서 기술된 하나의 현상일 뿐이므로 象의 방식을 적용하는데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전체적인 인체 생리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을 검토하는 작업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象을 통한 이해 방식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IV. 結論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에 대한 기존 주석가들의 주석 내용과 『黃帝內經』의 다른 편에 나오는 謀慮의 의미와 兵法書를 포함한 古典에 나오는 將軍과 謀慮의 의미를 검토하여 肝의 기능을 살펴 이 둘의 연관성을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 주석가들은 將軍之官과 謀慮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방법으로는 將軍과 謀慮의 총체적인 象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2. 문헌분석을 통해 將軍과 謀慮가 모두 善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勇氣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공통적으로 그 본질로 가지고 있으며, 將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謀慮를 발휘해야 하고, 반대로 진정한 謀慮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려는 將軍에 의해서만 일어나므로, 兩者를 분리할 수 없으며 肝의 총체적인 象을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肝主升發은 맑은 陽氣를 상승시켜 전신에 퍼나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將軍이 篤實한 자세를 바탕으로 審固한 謀慮를 통해 백성들의 생명을 퍼나가는 것과 통한다.
4. 肝主疏泄은 맑은 陽氣를 이끌어 氣가 정체된 곳으로 보내어 氣機를 소통시켜 흘러가도록 하는

79) 대식세포는 혈액, 림프, 결합 조직에 있는 백혈구의 하나로, 백혈구는 주로 외부 침입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 것으로 정서의 발현 및 소화과정과 긴밀히 연관되며 將軍이 謀慮를 통해 戰勢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象과 통한다.
5. 肝藏血은 陽氣의 升發을 위해 血을 정비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將軍이 전쟁에 앞서 질서를 정비하여 공동체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象과 통한다.
6. 현대 의학적으로 肝의 解毒작용은 將軍이 謀慮를 통해 군대를 정비하는 象과 통하고, 殺菌작용은 將軍이 군대를 정비하여 적군에 맞서 싸우는 象과 통한다.
7.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肝의 총체적인 象의 이해를 바탕으로 肝의 기능도 재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素問·靈蘭秘典論』의 肝에 대한 비유와 기존 책에 나타난 肝의 생리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 金德坤 外 7人 編著. 東醫小兒科學. 서울. 鼎談. 2002.
- 김상규. 中醫學의 肝主疏泄 機能과 五臟調節에 對한 考察.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대체의학과 보건학석사학위논문. 2013.
- 丹波元簡 등 編. 聿修堂醫書選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 唐宗海 著. 魏武英, 李佺 整理. 血證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 劉寅 直解. 成百曉, 李蘭洙 譯註. (譯註) 孫武子直解·吳子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2.
- 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 明文堂編輯部 校閱. 備旨具解原本周易(乾). 서울. 明文堂. 1999.
- 박선영, 김호현. 한의학원론. 서울. 도서출판 이채. 2015.
- 朴贊國 譯者.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 朴贊國 譯註.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과주. 집문당. 2009.
- 朴贊國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집문당. 2005.
- 白裕相. 原典學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9. 32(2).
- 服部宇之吉 校訂. 富山房編輯部 編輯. 司馬法直解(漢文大系 13 列子·七書). 東京. 富山房. 昭和59(1984).
- 服部宇之吉 校訂. 富山房編輯部 編輯. 尉繚子直解(漢文大系 13 列子·七書). 東京. 富山房. 昭和59(1984).
- 成百曉 譯註. (譯註)近思錄集解 3.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4.
- 成百曉 譯註. (譯註)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 成百曉 譯註. 書經集傳(下).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7.
- 孫國中 點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8.
- 辛相元. 李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4).
- 申泰三 校閱. 原本備旨論語集註(下). 서울. 明文堂. 2001.
- 吳昆 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 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 王新華 主編.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1.
- 王玉芳. 淺談肝爲將軍之官的意義. 江西中醫藥. 2011. 42(340).
- 劉寅 直解. 成百曉, 李鍾德 譯註. (譯註) 六韜直解·三略直解.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13.
- 劉向 撰. 林東錫 譯註. 說苑. 서울. 동서문화사. 2009.
- 李念菽 原輯. 陳蓮舫 加批. (加批圈點)內經知

- 要. 北京. 新文豐出版公司. 1994.
29.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30. 章楠 編注. 方春陽, 孫芝齋 點校. 靈素節注類篇 醫門棒喝三集.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31. 張寶成, 馮婷婷, 駱春梅, 高永翔. 肝爲將軍之官淺說. 新中醫. 2013. 45(2).
32. 張安玲. 論肝者將軍之官的生理病理意義. 中醫藥學報. 1997. 3.
33. 張隱庵 集注.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34.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編著. 東醫生理學. 파주. 집문당. 2008.
35. 丁奎萬 編著.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88.
36. 鄭宇鎭. 黃帝內經 의 형성배경에 관한 철학적 연구 : 유비적 사유의 전개. 2010.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7. 周楣聲 疏注. 夏學傳協輯. 黃庭經醫疏.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1.
38. 陳貴海, 劉衛華. 將軍之官發微. 國醫論壇. 2006. 21(5).
39. 陳柱杓 註釋.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40. 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 1991.
4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3.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 네이버 주식회사. 1999. [cited 2020 9 February] ; Available from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292b829263e49fa828aecbacf6a9b18>
44.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네이버 주식회사. 1999. [cited 2020 21 January] ;

Available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596&cid=51006&categoryId=51006>